

# 포스코 광양 리튬공장 생산규모 33% 늘린다

### 호주서 리튬 구매물량도 확대... "강한 고객 수요로 이차전지소재 사업 순항" 수산화리튬·탄산리튬 규모 연산 3만t서 4만t 확대... 2020년부터 생산 계획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배터리 원료인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포스코가 광양에 건설하기로 한 리튬공장 생산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앞으로 5년간 총 10조원을 들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리튬사업도 순항 중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광산개발 기업 필바라(Pilbara Minerals)는 포스코와 함께 추진하는 리튬공장의 생산 규모를 기존 계약보다 33% 확대하는 내용의 업

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일 호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포스코는 광양에 리튬공장을 건설, 필바라에서 조달한 리튬정광으로 2020년부터 연산 3만t 규모의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정광은 자연 광석을 높은 품위의 광물로 가공한 광석을 의미하며,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소재로 사용된다.

필바라도 리튬공장에 지분 30%를 투자

한 상태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리튬공장에서 생산할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 규모를 기존 연산 3만t에서 4만t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리튬정광 구매 물량도 연간 24만t에서 31만5천t으로 31% 증가한다.

앞서 포스코는 작년 2월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로부터 연간 최대 24만t의 리튬정광을 장기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필바라는 "포스코와 필바라는 한국 고객과 그들 파트너의 강한 수요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리튬공장과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리튬정광 구매 확대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바라는 확대된 물량을 맞추고자 광산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리튬공장 투자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MOU는 작년 2월 계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논 바인딩'(non-binding)이지만, 포스코가 사업 전망을 밝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6일 MOU 체결에 대해 "사업이 순항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세계 리튬 수요량은 2017년 25만t에서 2025년 71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0조원을 리튬 추출 기술 효율화와 공장 신설, 국내외 양극재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리튬에 주력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전략 발표  
다양한 미래 핵심 신기술도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9'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CES에 참가하는 관계사는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로 전시장 내 부스 설치와 미디어 행사 등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들을 선보인다.

우선 현대차는 7일 미디어 콘퍼런스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또 걸어 다니는 자동차인 '엘리베이트 컨셉트카'의 축소형 프로토타입이 작동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지난달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을 맡은 알버트 비어만 사장과 지영조 전략기술본부장 등이 CES에 참가한다.

정선현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CES에 참가했지만, 올해는 가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그룹 수석부회장을 맡으면서 자동차 부문 말고도 현대제철과 현대건설, 현대카드, 현대로템 등 여러 관계사의 현안들이 있고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부회장이던 지난해에는 CES에 참가해 인텔과 모빌아이, 오로라, 엔비디아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잇달아 만난 바 있다.

기아차는 CES에서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기술인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 제어(READ, 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시스템'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CES에서 처음 공개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의 4륜 전기 자전거인 '씨드카(SEED Car)'도 전시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새해에도 닭고기값 상승세... 한파·AI 미발병 영향

### 1년 전 비 2배 가까이 ↑ ...수입량도 역대 최대 달할 듯

겨울로 접어들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닭고기 가격이 새해에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농가를 덮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저한 방역에 힘입어 지난해 발병하지 않은 데에서 원인을 찾는 가운데, 닭고기 수입량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있다.

6일 한국육계협회가 발표하는 시세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9~10호 닭고기 1kg은 이달 3일 현재 4천 231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작년 12월 4일 3천308원보다 923원, 27.9%나 상승한 수치다.

1년 전 같은 날의 2천231원과 비교하면 2천원, 무려 89.6% 올랐다.

닭고기 가격은 지난달 6일 3천500원을 넘은 후 같은 달 17일 4천원을 넘었고, 한 달째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계도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나 송년회로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한다"면서도 "그래도 연초가 되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꺾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파의 영향으로 닭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양계장 난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닭의 성장이 더디고, 원하는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출하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파 때문에 닭고기 출하가 늦어지면서 수요-공급 사이에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해 가격이 올라갔다는 시각이다.

올겨울 AI가 자취를 감춘 것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년째 겨울마다 AI가 발생해 많은 양의 닭을 살처분했고 그때마다 닭고기 수요가 격감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나 올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닭고기 기피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년 연속 AI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는 AI가 발병하지 않은 게 연말 수요와 맞물리면서 수요 호조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AI 발병을 막기 위한 올해 정부의 예방·검사 강화, 지자체와의 현장점검 등 방역 활동은 '철통'에 가깝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오리 농가는 입식 자체를 금지해버리는 등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 방역 대책을 펼치고 있다"며 "철세

가 퍼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닭고기 가격이 뛰면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한 가격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선육 가격이 6천원을 돌파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점주들에 제공한 신선육 가격은 지난달 초 5천 200원에서 연말 5천250원으로 오르더니, 새해 들어서는 5천850원까지 상승했다.

또 다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사 역시 신선육 납품 가격이 5천800원으로 6천원에 육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상승에 경기불황으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설상가상으로 원가상승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내 닭고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수입량은 지난해 200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닭고기(HS코드 0207.14) 수입량은 지난해 1~11월 12만1천975t을 기록했다. 2014년 12만4천466t 이래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2월 수입분까지 추가된다면 2014년 수입량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절맞이 상품권 패키지 한정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소진시까지 상품권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최근 롯데백화점 광주점 상품권 판매소 직원들이 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로또 (840회)	
추첨일 : 2019년 01월 05일	
번호	2, 4, 11, 28, 29, 43 + 27
등위	금액
1등	2,042,961,788원
2등	66,763,458원
3등	1,496,676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 eco city

자연보호는  
인간의 생명이며 희망입니다